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히12:1-8

원죄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며 그러므로 성경 밖에는 이 약속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바로 알면 인생의 답을 갖게 되고 이후부터는 그 답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은 답 그대로 우리 인생 중에 행하십니다. 이 길이 인간이 원죄의 저주에서 나오는 길이요 원죄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사실이 눈에 들어와 정말로 발견이 되면 그 사람은 초월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 없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지난 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항상 세상을 초월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고 우리가 원죄의 모든 저주를 정복하게 합니다.

원죄 때문에 일어난 근본적인 문제를 3가지로 정리한 것이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입니다. 이 3가지 문제를 해결한 것이 그리스도의 3직이며 선지자, 제사장, 왕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의미를 알면 우리는 원죄에 대하여 답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답으로 살면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3직으로 사단과 전쟁을 하면 근본 문제 3가지는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24시간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3직으로 24시 전쟁하면 됩니다. 그냥 전쟁만 하면 되는 것이 이미 주님이 다 이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우리를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11:30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이 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내게 이것이 발견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3직으로 살면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주실 것입니다. 내가 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새 출발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1.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1) 징계라는 단어는 저주나 벌을 주는 것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바로 잡기 위하여 사랑의 매를 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5절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6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잠3:11-12에 있는 말씀입니다.
2) 그리고 오늘 본문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주 강한 단어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3)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도 하시고 더 나은 길로 인도도 하십니다. 그 어려움을 지난 이후에는 거의 예외 없이 감사하고 오히려 더 나은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4) 이때 이런 어려움이 나의 잘 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온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나의 실수로 인하여 온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항상 같습니다. 반드시 그 어려움과 고난은 예외 없이 축복으로 바뀌고 그 이후에는 더 확실한 눈이 열리고 더 깊이 언약 안으로 들어가고 더 나은 영적 세계를 살고 더 큰 세계복음화 응답의 세계를 살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지속적으로

초월의 세계를 누리게 됩니다.

5) 이런 현상은 누구에게나 어떤 문제든지 다 꼭 같이 일어납니다. 이유는 본래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습니다.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조건이 없고 무조건 말씀 그대로 됩니다. 이해가 부족할 것을 생각하셔서 많은 예를 들어서 성경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6) 이번 주 핵심 메시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첫째 메시지가 평범한 날에 할 것이었습니다. 위기 오기 전에 미리 할 것을 말한 것입니다. 먼저 망대를 만들고 그것을 누리고 있으면 응답이 미리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망대를 누리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7) 두 번째 메시지는 오늘이었습니다. 오늘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지만 전부 여정 즉 과정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에 대하여 빨리 답을 찾으라 오래 두면 영적 문제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려움은 다 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음은 시작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8) 그리고 3번째 내용이 응답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날이라고 하셨고 이정표를 만드는 날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40년 있을 때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응답이 없는 때가 아니고 중대한 시대적인 이정표를 만드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시아에 문이 막혔을 때에도 마게도니아에 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징계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은 역전의 과정일 뿐입니다.

9)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징계인지 아니면 내 잘 못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다 통틀어서 모든 문제는 역전입니다. 모든 운명 저주는 축복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징계이면 더 확실하게 축복으로 끝날 것이고 혹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치유하시고 역전을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10) 이것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뱀의 머리를 깹니다. 모든 운명과 저주를 역전합니다. 원죄의 권세를 꺾고 해방과 정복을 누리게 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날 그들은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노예된 곳에서 해방입니다. 답은 이것 뿐입니다.

11) 그 날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시고 짐승도 첫새끼는 다 죽였습니다. 애굽 전역에 어마어마한 곡성이 일어나고 왕의 큰 아들도 예외 없이 죽었습니다.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권세를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도 다 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 이 언약을 누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인생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 가면 거기에 준비된 응답이 있고 예비하신 사람도 만납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낙심하지 말고 회개하며 다시 한 번 언약을 잡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 인생 중에 다 행하실 것입니다.

13)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는 절대로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문을 다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은 사단의 머리를 깨고 원죄의 권세를 깹니다. 사단은 오늘도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언약을 잡으면 됩니다. 놀라운 증거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